하나님이 된 다음에야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구세주 조희성님

사람 자체가 어떤 존재며,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또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이사람이 성경적으로나 불경학적으로나 이사람이 세밀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신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후손이었으며 인간의 조상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입이 닳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조리 있게 어떠한 반론이라도 공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학설을 논해야 오늘날 잘못 알고 있는 이 세상의 학설을 전부 부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신이요 사람 자체도 신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고로 사람이 신이라는 것을 성경 상에 신의 아들이라고 하였고, 성경 불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82:6, 신명기 14:1, 요한1서 3:2)

그런고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요 개 자식은 개요 소 자식은 소가 되는 고로 그런고로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고로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 되는 고로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합리적인 논리로 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경 상에서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바로 전에 하나님이었었다는 의미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 옥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마귀 옥에서 석방되어 나와야 하나님이 된 다음에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된 다음에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성경적인 논리를 이사람이 열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는 말씀이, 천국은 마음속에 있다는 말은 천국은 이런 육의 세상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천국 자체가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 자체가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보아 하나님이나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도 되지만 천국이 되는 하늘나라는 하나님 집이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 불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고로 불경에서도 사람더러 '불심(佛心: 부처님 마음)을 품어라' 하였고, 극락세계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고 기록된 고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고로 사람 자체가 피로써 만들어졌고, 피는 마음작용인 고로 마음 자체가 천국이라면 피 자체가 천국을 말하는 것이요 피로써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고로 사람 몸 자체가 하나님이 될 때에는 사람 몸 자체가 천국이 된다는 것을 논해 놓은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불경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 몸속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질로 말미암아 생명이 존재한다

그런고로 사람 자체가 신이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었었다는 것도 되지만 이 세상 만물이 다 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질로 인하여 이 세상 만물이 생명이 존재하는 것을 봐서 이 세상 만물은 다 신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풀이 사는 것도, 나무가 사는 것도, 물고기가 사는 것도, 날짐승이 사는 것도 모든 짐승들이 사는 것도 사람 몸속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질로 말미암아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날 과학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이긴자가 생명의 과학을 첨단과학을 논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을 논하는데 합리적인 논리로 논합니다.

그런고로 성경 상에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한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는 고로 하나님 이외에는 알 자가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를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가 되는 고로 첨단 과학도 하나님이나 논할 수 있지 죄인은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사람의 몸에서 생명의 물질이 나와 생명의 물질이 되는 빛의 물질이 공기 속에 함유되어 있다가 비가 온다든지 하면 빗물과 함께 떨어지는 고로 비가 온 다음에는 벼라든지 밭에 있는 모든 농작물이 시들시들하게 노래지던 농작물이 비를 맞으면 시퍼렇게 되고 싱싱하게 생기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모자라서 물을 주니까 싱싱하게 자라는 것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빗물과 이 세상 물과 다르다는 것은, 이 세상 물과 다르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면 비가 와야 농작물이 싱싱해지지 그냥 물을 주어서는 누렇게 뜬 농작물이 파랗게 된 법이 없습니다.

그런고로 빗물은 공기 속에 함유되어 있는 사람 몸속에서 솟아 나온, 발산되어 나온 생명의 물질이 빗물과 함께 땅에 떨어지는 고로 그 빗물을 맞은 농작물이 싱싱해진다는 것은 생명의 물질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모든 만물이 생명의 물질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오늘날 이 세상에 말하기 시작한 지 벌써 팔 년이 지난 것입니다. 팔 년이 지나도록 이사람이 논하고 있는데 이 진리의 학설이 널리널리 알려지지 않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널리 알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와 같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의 물질이 나오는 고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의 물질이 나오고 생명의 물질이 나오는 고로 죽음의 신이 되는 죽음의 물질이 제거되면서 생명의 물질이 이 세상을 꽉 차게 만들 때에 죽음이 없어지며 죽음의 물질이 없어지며 썩히는 물질이 없어지는 고로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와 같이 과학적으로 이 세상이 천지개벽이 되는 천지개벽론을 과학적으로 논합니다.

사람이 늙는 것은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피가 썩음에 있어

그런고로 사람이 죽는 것도 병 걸리는 것도 늙는 것도 피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병 걸리고 늙고 죽는다는 것을 이사람이 시간시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이와 같이 논하는 것이 과학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학에 대해서는 세상 학문으로서는 논할 수가 없는 고로 결과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고로 결과를 보아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학문 속의 논리처럼 오늘날 사람이 늙는 것은 피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늙고, 피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썩은 핏속에서 병균이 발생되고 발생된 병균이 썩은 핏속에서 번식함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과학적인 말인데 피가 왜 썩느냐?

욕심부림으로 말미암아 피가 썩는다는 것은 바로 결과론적으로만 논하는 거지, 욕심부리면 피가 어떻게 썩는다는 것을 이 세상 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고로 그 결과론적으로 그 결과에 의해서 그 원인을 추적하면서 논하는 논리가 되는 고로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논리가 됩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에게 사과가 달리면 사과나무, 감이 달리면 감나무라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사람이 늙는 것은 피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늙는다, 사람이 죽는 것은 피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썩은 핏속에서 병균이 발생되고 발생된 병균이 번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의 기관이 쇠퇴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관이 썩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다는 논리는 지극히 합리적인 논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의 피가 왜 썩으며, 욕심 부리면 왜 썩느냐? 그것은 이 세상 말로는 수준이 얕은 죄악의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가 되는 고로 마귀의 말로는 이러한 생명의 말을 생명이 어떻게 진전되며,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그 학설을 논할 수 없다! 논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원인을 추구하는 논리 전개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말했던 거죠? 그런고로 오늘날 사람이 죽는 결과가 무엇 때문에 오며, 사람이 늙는 결과가 무엇 때문에 오느냐 하는 것을 나이가 먹어서 늙는다, 나이가 먹어서 죽는다, 병 걸려서 죽는다, 병균 때문에 병이 걸린다는 그 논리가 불합리한 논리요 그 논리가 잘못된 논리라는 것을 이사람이 합리적인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잘못된 논리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비결

그런고로 사람이 피가 썩는다는 것은 사망의 영이 되는 마귀의 영이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주체의식이 생각하는 대로 피가 썩고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의 영인 고로 사망의 영인 고로 사망의 영이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이 되는 생명의 피를 썩혀서 사람을 늙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하고 병 걸리게 한다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런고로 죽지 않는 비결은 피만 썩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없고, 늙을 수도 없다는 논리를 어떤 모양으로 전개하느냐 하면 욕심부림으로 말미암아 피가 썩는 고로 욕심 자체가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욕심을 부리고 나라는 주체의식이 성질을 부리고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람을 미워하는 고로 피가 썩는 고로 나라는 주체의식만 제거하면 사람은 피가 썩지 않는 고로 죽을 수 없는 고로 늙을 수 없고 죽을 수도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욕심이 나올 수 없으며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나라는 주체의식이 없어지는 철학이 되는 고로 그런고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이 학설은 지극히 진리의 학설입니다. 진리의 학설은 어머니 아버지 피로 만들어졌고, 할아버지 할머니 피로 만들어졌고,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피로 만들어졌고, 고조할아버지 할머니 피로 만들어졌고, 5대조부, 6대조부 천 대 조부 피로 만들어진 고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우리의 피는 공중에서 떨어진 피도 아니요 땅에서 솟아난 피도 아니요 우리 조상의 피가 우리 몸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인 학설로 논할 수 있습니다.

6면에 계속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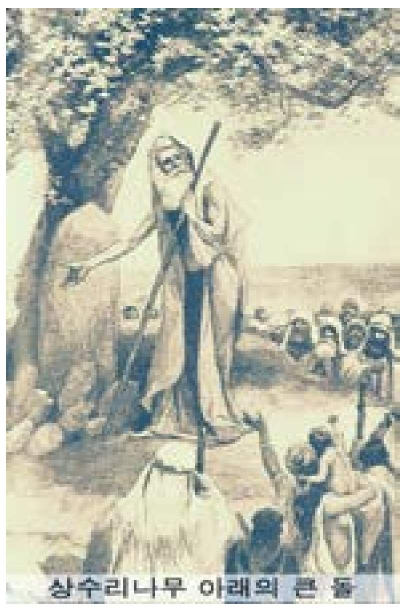
참성경

≪8장 여호수아≫

5절: 나이 많은 여호수아

(지난호에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한 다음,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장사하고 그 땅을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옛날 옛적에 야곱이 요셉에게, "나는 죽지마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셔서 언젠가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거다. 내가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세겜 땅만은 네 형들에게 주지 않고 너에게 주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상수리나무 아래의 큰 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고별사에 화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임종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딤낫 세라에 장사하였습니다. 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임종하게 되니, 사람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의 산악지대 기브아에 장사지냈습니다.* 안젤라

경축 44주년 승리절

사회 / 정수윤

1. 색소폰 연주 / 박상구
『한마음 한뜻으로』, 『만남』

2. 워십댄스 / 김선애, 강하나, 변숙자, 김경애, 특별출연 신순이

1. 테마가 있는 노래 / 라준경
『사철가』, 『새 아리랑』

4. 합창 / 무궁화합창단 지휘 박철수, 반주 박인숙
『훨훨 날아요』

5. 관현악 / 무궁화관현악단 지휘 김성우
『이기자』 무궁화합창단(협연), 『승리제단』 전성도 찬송